

◇ 연구노트

昌德宮 銅人에 對한 小考

鄭 遇 悅

圓光大 韓醫大

A Study on the Bronze Figure in Changdŏk Palace

JEONG Woo Yeal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e Bronze Figure(銅人) in Changdŏk Palace called “Chimgeum Dongsang(鍼金銅像)”, was made of copper and was a man-like size. The meridian channels and its acupoints were engraved in each part of the whole body. That is the only one extant in Korea. Unfortunately, however, the time of production and the name of the maker are unknown. It was suggested by some scholars that the statue was made in the 16th century and influenced by the form of Ming(明) Dynasty, but the theory is uncertain. In this study, the time and maker of the statue is investigated by means of a bibliographic research. The results can be summerized as follows.

1. This statue was manufactured based on the form of Dong'in Suhyoel Chingu Dogyoeng(銅人臉穴鍼灸圖經: Illustrated Manual of Acupoints of the Bronze Figure) written by Wang Wei-Yi of Northen Song(北宋) Dynasty. It was made of copper by Koreans in the 15th year of King Sejong(1443), and was modified to go with Korean physique.

2. It is supposed that the statue was produced to teach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o acupuncture doctors and women doctors and to test the qualification of acupuncture-moxa specialist in Palace Hospital(內醫院). The institution of woman doctor and acupuncture-moxa specialist was already in practice in early Chosŏn Dynasty, therefore there was a need for producing the bronze statue for the education and testing the qualification.

I. 머리말

現存하는 昌德宮 銅人은 그 名稱이 「鍼金銅像」이며, 遺物番號 141로 그동안 昌德宮 秘苑 仁政殿 車行閣에 保存되어 오다가 1992年 12月 23일부터 德壽宮 宮中遺物展示館에서 現在 公開展示되고 있다.

鍼金銅像은 銅으로 鑄造되었으며 體表 全身에 흐르는 經穴을 陰刻으로 前後面과 四肢, 頭部 등에 刻線하고 이 刻線에 陰點으로 經穴을 뚜렷이 나타냈다. 現在까지 우리나라에서는 紙面에 正人形, 伏人形으로 墨線이나 彩色으로 그린 經穴圖만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을 뿐 人體 實物과 같이 銅製로 鑄造하여 身體 各部分에 經穴을 나타내고 各 經穴의 名稱을 陰記한 人體模型像은 이 昌德宮 銅人外에는 아직 發見되지 못하였다.¹⁾

그러므로 鍼金銅像은 國內 오직 하나밖에 없는 唯一한 銅人이다.

그러나 이 鍼金銅像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製作되었는지에 대하여는 文獻的 資料가 發見되지 않아 그 正確한 年代와 作者를 알 수 없다.

다만 最近 金重完이 그의 論文에서 그 年代를 16世紀頃으로 推定하였고,²⁾ 崔周若이 明 流入說³⁾을 主張하여 明代 製作品으로 보았으나 이는 文獻的 考證이 不充分하여 信憑性이 없다.

中國醫史學者 靳士英⁴⁾은 1993년 7월에 筆者에게 보낸 書信에서 崔周若의 “太宗 15年 10월에 千秋使 尹吳眞이 明나라에서 가져왔다”는 明來說과 “內醫院에서 銅人이 醫女實習用으로 使用되어 왔다”라는 主張에 대하여 疑問을 提起하고 이에 대한 文獻的 資料와 最近 韓國學者들의 銅人에 關한 論文 및 筆者의 見解를 要請해왔다.⁵⁾

이에 筆者는 昌德宮 鍼金銅像에 대한 崔의 明來說이 妥當한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를 確認코자 직접 德壽宮에서 展示되고 있는 銅人像을 觀察하고 銅人像에 關聯된 論文과 古典文獻을 通하여 이를 檢證한 結果 몇가지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1) 文化公報部, 「宮中遺物圖錄」(서울: 文化財管理局, 1989), pp. 128, 343.

2) 金重完, “古典針金銅像과 中國樹脂銅像의 比較研究”, 「圓光大學院 韓醫學科 學位論文抄錄集」(圓光韓醫學研究所, 1992), p. 245 參考.

3) 中國醫史學者인 靳士英은 崔周若이 그의 著 「針灸臨床實際」에서 千秋使 尹吳眞이 朝鮮 太祖 15 年에 明나라에서 가져왔다고 하였으나 실제 그의 저서에는 나타나지 않음.

4) 현재 中國 廣州醫學高等專科學校에 在職하고 있으며 醫史學者로서 특히 銅人에 關한 연구를 하고 있는 西醫이면서 中醫인 中西醫學者이다.

5) 靳士英이 筆者에게 보내온 書信의 내용일부는 다음과 같다. “一, 據文獻記載, 現韓國漢城市昌德宮秘苑 仁政殿車行閣藏有針灸銅人一具, 高 85cm, 重 18.5kg, 刻有經脈線及穴點, 人體表標誌如胸鎖骨均痕明顯, 曾展出過, 崔周若在「針灸臨床實際」一書中題爲“經穴銅人形”發表過照片. 史載太宗 15年 尹吳眞來中國, 爲回國後開展鍼灸, 中國禮部予小型針灸銅人一具(1415), 當年 12月 14日 李朝政府曾頒布有關針灸銅人的記錄, (不知出自何典?) 李朝太宗 6年 設置有“醫女制度, 成宗時, 在醫女教學課目中有明文規定學習針灸銅人. 此銅人一直保存在內醫院中. 展出說明是: 這是過去但任太醫院的典醫在學習針術時用的銅人形. 我不知說的是否準確? 我想求您送給我一張照片和有關的史料. 以下省略……”

II. 崔周若의 明來說과 錯誤에 對한 反證

靳士英은 崔周若이 그의 著書 「鍼灸臨床實際」⁶⁾에 昌德宮 鍼灸銅像의 寫眞을 掲載하고 明來說에 대한 史料로 “太宗 15년에 尹吳眞이 明나라 使臣으로 갔다 오는길에 가져왔다”라고 하였으나 실제 韓國語版 「鍼灸臨床實際」에는 銅人像의 寫眞만 收載되어있지 明來說에 對한 言及은 없다. 이 崔의 다른 論文에서 明來說을 引用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일 崔가 그러한 主張을 하였다면 이는 잘못된 見解이다.

왜냐하면 崔가 主張하기 위하여 提示한 史料 太宗 15년의 尹吳眞은 「太宗實錄」 卷三十의 記事로 그 原文 內容은 다음과 같다.

帝賜我銅人圖 千秋使吳眞回自京師 禮部咨曰 淮國王咨該 本國鍼灸方書鮮少 移咨奏請 給降銅人取法便益 本部官欽奉聖旨 着太醫院畫兩箇與他 去欽此行 移太醫院採畫鍼灸銅人仰伏二軸就付 …⁷⁾

遣左軍都摠制 朴子青 如京師 謝賜銅人圖也⁸⁾

命刊印鍼灸銅人圖頒布中外⁹⁾

위의 史料 太宗 15년의 記事를 살펴보면 10月 丁亥에 千秋使 吳眞¹⁰⁾이 明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採畫鍼灸銅人圖 仰伏 2軸을 가져왔고, 그 해 11月 甲午(1)日에 左軍都摠制 朴子青¹¹⁾을 明에 보내 銅人圖를 보내준데 대하여 感謝의 뜻을 전했으며, 12月 丁丑(14)日에는 鍼灸銅人圖를 刊行하여 全國에 頒布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崔가 主張한 尹吳眞의 明來說은 吳眞이 明나라에서 鍼灸銅人圖를 가져온 것을 銅人으로 잘못 알았으며, 吳眞을 尹吳眞으로 誤記한 것은 金斗鍾이 그의 著書 「韓國醫學史」에서 吳眞을 尹吳眞으로 잘못 記述한 것을 原典出處의 確認없이 再引用한데서 招來된 誤謬인 것으로 推測된다¹²⁾

6) 崔周若, 「鍼灸臨床實際」, (서울:杏林出版社, 1975).

7) 「太宗實錄」 卷30 15年 10月 丁亥條. 皇帝가 나에게 銅人圖를 下賜함. 千秋使(황태자의 생일축하특사) 吳眞이 북경에서 돌아올 때 그 곳 禮部에 말하기를 “내가 올 때 우리나라 임금님의 忝問을 받아 가지고 왔으니 내말은 우리 국왕의 인준된 것으로 국왕께서는 우린나라에는 針灸方書가 드물으니 이를 황제께 아뢰어 銅人을 내려주시게 하면 取法이 便益할 것 임니다” 하였다. 이에 그곳 本部官이 임금의 뜻을 기쁘게 받들어 太醫院에 붙어 있는 그림 두폭을 주어 이번 행차를 즐겁게 하였다. 太醫院에 옮겨 針灸銅人 正面, 背面 두폭을 채색으로 그려 곧 부쳤다.

8) 上揭書, 同年 11月 甲午條. 左軍都摠制 朴子青을 북경으로 파견해 보내 銅人圖 下賜에 대한 감사의 禮를 하였다.

9) 上揭書, 同年 12月 丁丑條. 針灸銅人圖의 刊行을 命令하여 全國에 頒布하였다.

10) 朝鮮朝 太宗 15年(1415) 5월에 千秋使로 明나라에 갔다가 10월에 돌아오는 길에 銅人圖 2軸(仰伏)을 가져 왔다.

11) 朝鮮 太宗 15年(1415) 11月 1日 左軍都摠制로 明에 가 銅人圖 下賜에 感謝의 禮를 함.

12)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探求堂, 1981), p. 204 參照.

III. 醫女와 銅人

우리나라의 醫女制度는 朝鮮 太宗 6年(1406)에 許衡¹³⁾의 建議에 依하여 처음 시작되었으며 初期에는 濟生院¹⁴⁾에만 두었던 것을 世宗 때에는 惠民署¹⁵⁾에 두어 그 중 우수한 자는 內醫院에서 勤務케 하였다. 醫女制度의 必要性은 當時 社會制度가 男女의 區別이 엄격하여 男醫가 婦人의 疾病을 診療할 수 없는 데서 그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한 方案으로 模索된 것이다¹⁶⁾

命濟生院 敎童女醫藥 檢校漢城尹 知濟生院事 許衡上言 竊謂婦人有疾 使男醫診治 或懷羞愧 不肯出示 其疾以致死亡 願擇倉庫宮司童女數十人 敎以脈經 鍼灸之法 使之救治 則庶益殿下好生之德矣 上從之 使濟生院掌其事。¹⁷⁾

처음에는 患者를 돌보고 醫師를 돕는 看護師의 役割이 成宗에 이르러는 直接 疾病을 治療하는 內醫 役割까지 맡게 되어 醫女를 內醫¹⁸⁾, 看病醫¹⁹⁾, 初學醫²⁰⁾의 三等級로 나누어 그에 따른 敎科目이나 給料까지도 달리하였다.

成宗 9年(1478) 2月에는 醫女에 대한 勸課條目이 마련되어 이 가운데 醫女의 必須科目으로 「直指脈」²¹⁾, 「銅人經」²²⁾, 「加減十三方」²³⁾, 「和劑」²⁴⁾, 「婦人門」²⁵⁾이 指定되었다. 이 必須科

13) 朝鮮朝 太宗時 濟生院 知事로 太宗 6年(1406) 3월에 醫女制度設置에 관한 建議을 하여 濟生院에서 童女에게 醫術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醫女가 생기게 되었다.

14) 濟生院은 高麗 光宗 14年(963)에 설치되어 麗末까지 존속했던 濟危寶와 같은 일종의 사회사업기구로, 太宗 6年(1397) 8월에 설치되었다. 濟生院에는 政府에서 米布를 내어 寶를 삼았으며, 그 利子로 藥을 購入하여 가난한 病者를 구하였고, 奴婢를 주어 이들로 사환과 採藥人을 삼아 약재를 採納하여 敎療에 充當하였다. 그러므로 濟生院은 病者의 治療만을 담당하는 醫司와는 달리 貧民行旅, 鰥寡孤獨, 篤疾, 廢疾, 失業民과 棄兒, 孤兒 등을 治療護養하는 기관이다.

15) 惠民署는 鮮初에 惠民局이라 하던 것으로 前朝 惠民典藥局을 계승한 것이다. 이것은 藥을 典賣하고, 庶民을 敎療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었다. 惠民局에는 政府에서 藥價로 五升布(닷새배) 6千匹을 지급하여 이것으로 藥材를 갖추게 하였다. 또 원본의 利息을 도모하여 10분의 1의 이자를 받아서 항구적으로 약을 비치해 둘 수 있게 하였다 (鄭道傳, 「三峰集」 第13卷, 朝鮮經國典, 上, 惠民典藥局條).

16) 孫弘烈,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서울: 修書院, 1988), pp. 234-245; 孫弘烈, 「朝鮮中期의 醫療制度: 醫療制度의 變遷과 醫書의 編纂, 刊行 및 對外交流를 中心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15(1993), 5-10 參照.

17) 「太宗實錄」 卷11 6年 3月 丙午條. 濟生院에 命令하여 童女에게 醫藥을 가르치게 함. 檢校 漢城尹 知濟生院事인 許衡가 임금께 간절히 아뢰기를 “婦人들은 병이 발생해도 남자 의사들에게 진찰 받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꺼려 몸을 내보이지 않아 疾病으로 死亡하게 됩니다. 원컨대 倉庫와 宮司에서 일하는 童女數十人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脈經과 針灸의 法을 가르쳐 치료케 하면 곧 거의 편익케 될 것이니 이는 임금님의 好生하는 덕분일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 건의에 좇아 濟生院으로 하여금 그 일을 맡게 하였다.

18) 醫女는 醫師로서의 독립된 자격보다는 看病醫나 醫員의 補助者, 또는 產婆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醫術을 인정받아 매달 料米를 지급받던 惠民署속의 醫女와 宮中の 內侍醫女를 말한다.

19) 각 의료기관과 출신지에서 醫員을 補佐하면서 針灸를 시술하고, 看病에 종사하던 醫女로 대부분의 의녀가 이에 속한다.

20) 학습단계에 있는 初級醫女.

21) 診脈에 관한 書로 「脈訣」이나 「脈經」에서 重要내용을 모은 것으로 추정된다.

目に「銅人經」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當時 醫女는 必須的으로 鍼灸工夫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禮曹啓醫女勸課條 一藝文館員及有名文臣二員兼差授輪次教誨 一醫女所讀書 直指脈 銅人經 加減十三方 和劑婦人門 產書 一醫女分三等 一曰內醫 二人每朔給料 二曰看病醫 二十人以前月講書多者四人給料 三曰初學醫 一提調每月上旬講書 中旬脈診命藥 下旬點穴 歲抄醫司提調 令講方書 脈命藥點穴通考²⁶⁾

우리나라 鍼灸書는 이미 高麗末부터 「銅人經」과 「資生經」²⁷⁾이 宋以後 輸入되어 朝鮮時代 醫書인 「鄉藥集成方」²⁸⁾과 「醫方類聚」²⁹⁾에 引用되었으며, 그 후 「東醫寶鑑」³⁰⁾에서는 이 두 醫書의 引用部分을 再引用하였다. 이것은 「東醫寶鑑」集例의 引用書目에 「銅人經」이나 「資生經」이 나타나지 않고, 다만 「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만 나타나고 있으나 本文 鍼灸篇의

22) 原名은 「銅人 穴針灸圖經」으로 宋代 王惟一(약 987-1067)이 撰함. 3卷. 原書는 宋 醫官院에서 木版으로 刊行하고, 四壁石碑上에 새겼으며, 同時에 「穴腧都數」 1卷을 補入함.

23) 本書는 日本 多紀幸修堂藏板 醫籍考에 徐文中의 撰으로 되어있다. 文中은 그 傳에 針藥方에 능하나 그중에도 특히 針灸術에 능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成宗 9年 2월에 本書가 禮曹의 醫女 勸課條目에 나타남으로 보아 醫女의 必須科目이었던 것 같다.

24) 本書는 「和劑」라고만하여 잘 알 수는 없으나 당시 宋代의 醫書가 많이 流入된 것으로 보아 宋代 著作인 「和劑局方」일 것으로 생각된다. 「和劑 局方」은 原名이 「太平惠民和劑局方」으로 宋代 太醫局에서 編纂한 一種의 製劑藥處方集이다.

25) 일반적으로 婦人疾患에 관한 專門의 知識을 다룬 醫書로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다.

26) 「成宗實錄」卷89 9年 2月 己酉條. 禮曹에서 醫女에게 勸課條目을 啓示함.

첫째, 藝文官員 및 有名文臣 2명으로 教授를 兼任發令하여 교대로 가르치게 할 것.

둘째, 醫女의 所讀書를 「直指脈」, 「銅人經」, 「加減十三方」, 「和劑方」, 「婦人門」, 「產書」로 할 것.

셋째, 醫女는 3등급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內醫 2명으로 매일 料米를 지급하고, 둘은 看病醫 20명으로 그 중 前月講書에 점수를 많이 받은 자 4명에게는 料米를 지급하며, 셋은 初學醫로 한다.

넷째, 提調는 매일 上旬에는 點穴(침놓는 혈자리를 찾는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歲抄때 醫司提調가 方書, 名藥, 點穴의 1년 점수를 通考하여 陞降을 결정하는데, 그 중 不通함이 많은 자는 奉足을 奪하되 初年에는 1명, 次年에는 2명을 奪하고, 3년에는 本役에 還送한다.

다섯째, 初學醫는 看病하는 일은 시키지 말고, 學業에 전념케 한다.

여섯째, 나이가 40이 되도록 一方에도 통하지 못하고, 또 다른 技藝마저 없는 자는 本役에 還送한다.

일곱째, 매년各司에서 官婢 1명씩을 간택하여 醫女의 數를 보충한다.

27) 本書는 原名이 「針灸資生經」으로 宋代 王執中이 撰하여 1220년에 刊行되었다. 本書는 널리 각종의 針灸文獻을 參考하고 作者 本人의 針灸臨床經驗과 心得을 結合하여 針灸에 대한 비교적 계통적인 소개를 하였다.

28) 「鄉藥集成方」의 引用書目에는 「銅人經」, 「資生經」이 보이지 않고 다만 本文의 內容 中 引用文에 「銅人經」, 「資生經」이 나온다.

29) 「醫方類聚」에는 引用書目 中 「銅人經」, 「資生經」의 書目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직접 이 醫書들에서 引用하였음을 알 수 있다.

30) 「東醫寶鑑」의 引用書目에는 「鄉藥集成方」에서와 같이 引用書目 中 「銅人經」, 「資生經」의 書目이 나타나지 않고, 다만 「醫方類聚」, 「鄉藥集成方」만이 나타나 針灸編의 內容 가운데 「銅人經」, 「資生經」의 引用書와 內容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本書는 「醫方類聚」와 「鄉藥集成方」에서 再引用하였음을 알 수 있다.

内容 中에는 「銅人經」과 「資生經」의 引用文이 나오는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살펴볼 때 昌德宮의 鍼金銅像은 朝鮮時代 內醫院이나 惠民局에서 醫女들이 鍼灸學習을 위하여 「銅人經」이나 「銅人圖」와 함께 實習用으로 使用되었던 것이 保存되어 내려온 것이 아닌가 思料된다.

IV. 鍼金銅像의 製作年代

그러면 昌德宮의 銅人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鍼金銅像의 明來說에 대하여는 이미 앞에서 그 不當性を 指摘하였다. 筆者는 鍼金銅像이 우리나라에서 鑄造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年代는 15世紀頃 以後라 推定한다.

그 理由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新羅때부터 金佛銅像이나 金鐘을 만드는 鑄造術이 發達되었고³¹⁾, 高麗 文宗 28年(1073) 8月에는 金良鑑, 盧旦을 宋에 보내어 醫藥畫型工을 求하게 하여 宋醫二人이 왔다는 記錄으로 보아 宋代의 銅人鑄造術이 전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宋代에서는 이미 仁宗 25年(1027)에 王惟一이 2具의 銅人을 鑄造하였으므로 우리나라에 온 宋醫들이 銅人鑄造術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當時에는 銅人이 鑄造되었다는 文獻資料가 發見되지 않아 昌德宮 銅人을 高麗時代의 作品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世宗 15年(1433) 6月 壬午條에 보면 典醫提調 黃子厚³²⁾의 建議에 따라 鍼灸專門法을 만들고 鑄鐘所에 命令하여 銅人을 成造케 한 後 그것으로 鍼灸專門醫들은 點穴法을 철저히 배우고 試才케 하였다는 記錄이 있다.

丁亥遣太僕卿金良鑑, 中書舍人盧旦 如宋謝恩兼獻方物 宋醫王愉徐先等還³³⁾

典醫提調黃子厚上言曰 …… 中略 …… 願自今依上國習醫之法 各立專門 令鑄鐘所鑄成銅人 依點穴之法而試才 則試取之法亦可實矣³⁴⁾

위의 文獻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世宗 15年(1433) 以後에 銅人이 鑄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昌德宮의 現存 銅人이 當時 世宗의 命에 의하여 製造된 作品인지는 確認할

31) 全相運, 「韓國科學技術史」(서울: 正音社, 1976), pp. 261-264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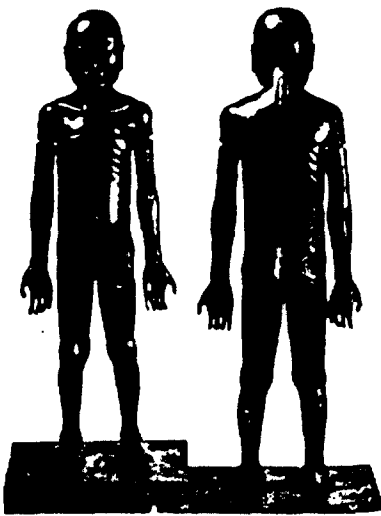
32) 朝鮮朝 世宗時 典醫監 提調를 지냈다. 일찍부터 藥理에 精하므로 世宗 3年 10월에 副使로 明에 가서 本國에서 나지 않는 藥材를 廣求하여 돌아오게 하였으며, 同年 9月에는 그의 請으로 충청도에서 鄉藥救急方을 印出하였다. 同年 6月에는 典醫監 提調로서 鄉藥集成方 中の 經驗良方을 精選略集하여 鄉名과 藥毒의 有無를 註하여 어리석은 백성들로서 알기 쉽게 하였으며, 또는 銅人을 鑄成하여 點穴의 法에 따라 試才의 法을 확정할 것과 醫를 請할 때에는 病家로서 馬를 보내어 醫를 맞게 하는 등의 조항을 陳達했다.

33) 「高麗史」世家 卷9 文宗 28年 8月條. 정해(丁亥)년에 태복경(太僕卿) 김랑감(金良鑑), 중서사인(中書舍人) 노단(盧旦)이 송(宋)에 가서 謝恩으로 方物을 헌납하고 宋醫 왕유(王愉), 서선(徐先) 등과 함께 돌아왔다.

34) 「世宗實錄」卷60 15年 6月 壬午條. 典醫 提調인 黃子厚가 임금에 아뢰기를 …… “원컨대 이제 중국의 習醫의 法에 의거하여 각 專門職을 세웠으면 하니 鑄鐘所에 命令하여, 銅人을 鑄成케 해 點穴하는 法에 依據해 試才하면 試取法이 또한 實現될 수 있습니다.”

方法이 없다. 그러나 現存하는 北京 中醫研究院 醫史學博物館에 所藏된 銅人(天聖銅人復元)³⁵⁾이나 日本 東京國立博物館에 所藏된 銅人인 昌德宮 鍼金銅人과 비교해 볼 때 北京銅人과 東京銅人은 그 形象이 같으나 昌德宮 銅人은 이들과 사뭇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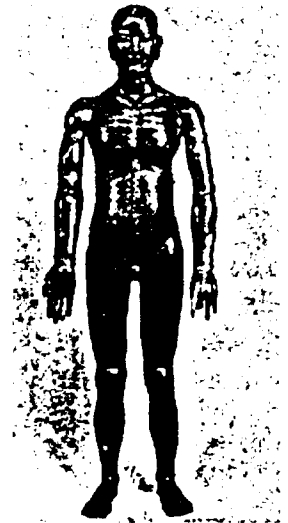
그러므로 昌德宮의 鍼金銅像은 世宗 15年(1433)以後 우리나라에서 鑄造되었을 것이라 推定하는 바이다.



1) 昌德宮 鍼金銅人



2) 北京 中醫研究院 天聖銅人



3) 日本 東博銅人

V. 鍼金銅像의 形態 및 構造

鍼金銅像은 크기가 86.0cm, 머리둘레 37.8cm, 어깨폭 22.5cm, 팔길이 40.0cm, 무게 18.5kg의 壯年의 男子像이다.³⁶⁾

全身에 흐르는 經穴은 陰刻線으로 前後面과 四肢, 頭部 등에 刻線하고 이 刻線上에 陰點으로 經穴을 뚜렷이 나타내었으며 體表에는 穴名稱을 陰刻하고 胸腹腔에는 臟器를 두고 가운데는 비게 하였으며 百會部位(정수리 部位)에는 直徑 1cm의 穿孔과 그 兩側에는 4mm의 補助구멍이 있다. 金重完은 그의 論文 “古典鍼金像과 中國樹脂銅像의 比較 研究”³⁷⁾에서 百會部位의

35) 北京 中醫研究院 醫史學博物館에 所藏된 銅人으로 1970 年代에 中國 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와 南京醫學院이 歷史資料를 考證하여 復元하였다. 당시 日本 東京國立博物館의 銅人을 宋代 天聖銅人이라 보고 참고 하였으나, 최근 日本의 醫學者 小曾戸 洋은 “東博銅人形の製作者および年代について：幕府醫官山崎氏の事跡”，『醫道の日本』7(1993)，152-153에서 지금까지의 天聖銅人의 明來說이나 朝鮮說을 否認하고 日本製作說을 主張하였다.

36) 金映鎰, “古典針灸銅像과 現行樹脂銅像의 比較研究”, 『韓醫學科 學位論文 抄錄集』(圓光大學校 韓醫學研究所, 1988), p. 207.

穿孔은 물을 부을때 사용하는 구멍으로 蜜蠟을 100℃로 끓여 銅人을 그 속에 담가 穴孔이 막히도록 銅人의 銅體를 塗蠟하여 銅人體表의 經穴點을 알아 볼 수 없게 한 다음 百會部의 구멍으로 물이나 水銀을 붓고 鍼灸醫를 試驗할 때 受驗者가 鍼穴을 刺鍼하면 물이나 水銀이 나오는 것으로 그 正確度를 判定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金의 解釋은 中國中醫研究院 醫史學博物館長인 李經緯教授가 그의 著書 「中國古代醫學史略」에서 天聖銅人의 使用法을 說明한 內容과 附合된다.³⁷⁾

鍼金銅像의 四肢는 몸체중에서 肩胛部位와 分離될 수 있게 하였고, 下肢와 頭部도 分離되는데 頭部는 前後로 分離할 수 있게 하였다.

經穴數는 354穴로 이는 宋代 王惟一의 「銅人腧穴鍼灸圖」³⁸⁾ 및 元代 滑壽의 「十四經發揮」⁴⁰⁾와 같으며, 現在 WHO 公認 十四經의 經穴中 漏落된 穴(眉衝, 督俞, 氣海俞, 關元俞, 風市, 急脈, 中樞)도 모두 서로 같다.

Ⅵ. 맺음말

昌德宮 銅人은 그 名稱이 「鍼金銅像」으로 鑄造되었으며, 人體 實物 크기로 身體 各 部分에 經穴을 나타내고 各 經穴의 名稱을 陰記한 人體模型으로 國內에 하나밖에 없는 唯一한 銅人이다.

그러나 이 銅人의 製作 年代와 作者에 대하여는 아직 確實히 밝혀지지 않고 다만 16世紀說과 明來說이 있으나 이 또한 正確한 文獻的 考證이 없어 믿을 수 없다.

이에 著者는 昌德宮 銅人의 製作時期와 作者 및 製作動機를 밝히기 위하여 文獻을 通하여 考證한 結果 다음과 같은 몇가지 結論을 얻었다.

1. 昌德宮 鍼金銅像은 宋代 王惟一의 「銅人腧穴鍼灸圖經」을 기본으로하여 朝鮮 世宗 15年(1433)以後인 15世紀頃에 韓國人에 의해 韓國人의 體型에 맞게 銅으로 鑄造된 獨創的 作品이다.

2. 製作動機는 內醫院에서 鍼灸醫나 醫女에게 鍼灸學習을 시키기 위한 學習用 으로 만들어졌으며, 또한 專門鍼灸醫에 대한 資格을 判定할 때 試驗用으로 使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推定된다.

以上の 結果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朝鮮初期에 醫女制度和 專門鍼灸醫制度가 실시되어 이들을 위한 教育用 및 試驗用으로 銅人의 必要性에 의하여 銅人이 製作되었을 것으로 思料되나, 보다 正確한 考證을 위하여는 銅人에 대한 物理學的, 材料工學的 分析研究가 뒷받침되고 아울러 鑄鐘所의 鍼金銅像 鑄成에 대한 記錄이 發見되어야 할 것이다.

37) 註 2)의 論文.

38) 李經緯·李志東, 「中國古代醫學史略」(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0), pp. 184-187 參照.

39) 註 22)의 冊.

40) 經脈學의 著書로 3卷으로 되어 있음. 元代 滑壽의 撰으로, 1341년에 刊行. 本書는 明代의 「薛氏醫案」叢書 중에 收錄되었고, 현재 校注印刷本이 있다.